

바둑

이세돌 명인전 단독선두

속적 이창호 꺾고 5승1패

이세돌이 이창호를 꺾었다. 이세돌 9단이 지난달 31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5기 강원랜드배 명인전 본선리코에서 이창호 9단을 162수 끝에 백 쪽으로 꺾었다.

이세돌은 이 승리로 지난 2006년 9월 이후 이창호 9단에겐 내리 4연승을 거뒀다. 상대전적에서는 이창호 9단이 23승19패로 여전히 앞서고 있다.

이세돌 9단은 이창호를 꺾음에 따라 명인전 본선리코에서 5승 1패로 단독선두에 나서게 됐다. 그는 2연승 후 목진석 9단에게 탈미를 잡혀 결승 진출을 나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3연승을 올리면서 결승 고지를 향한 8부 능선을 넘었다.

이세돌 9단은 이영구 6단, 김지석 4단, 배준희와 대국에서 2승을 추가할 경우 강원랜드배 결승 티켓을 거머쥐게 된다.

반면 이창호 9단은 리코 2승 4패로 사실상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현재까지 김승준 9단, 박정상 9단, 김지석



4단이 4승 2패로 공동 2위, 목진석 9단이 4승 3패로 3위를 달리고 있는 것을 감안할 경우 이창호 9단이 남은 대국을 모두 승리해도 결승 진출이 불투명한 상황.

강원랜드배 다음 대국은 오는 7일 김승준 9단과 박정상 9단의 대결로 시작된다. 대회 우승상금은 1억원이며, 제한시간은 각 2시간에 30초 초읽기 3회이다. 리코 1, 2위가 결승 5번기로 우승자를 가리며 3위까지는 차가워 본선 시드를 받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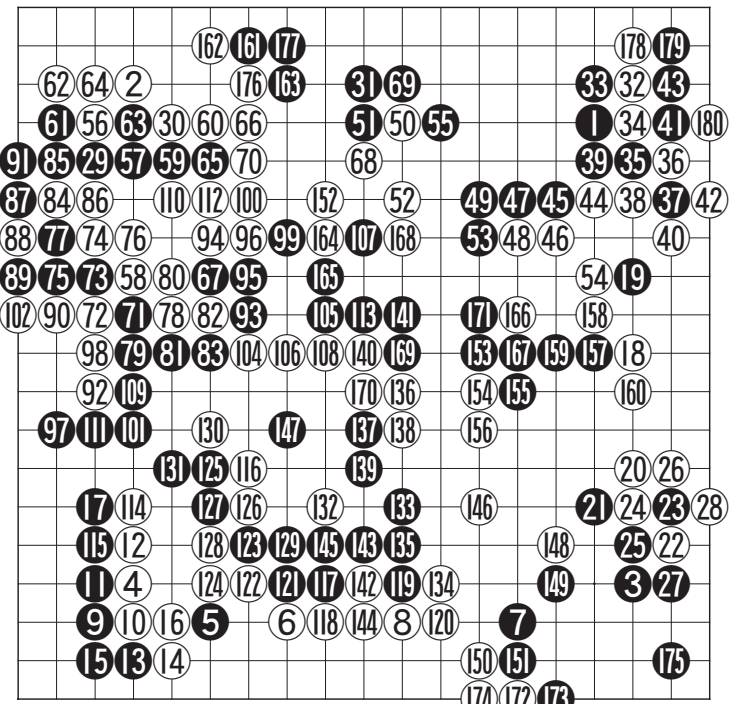
제16회 광일배 직장대항 단체 4회전

‘초반에 걸린 승부’

총보(1~180)

白 이창호 5단 (주) 송림

黑 최한용 5단 (조선대)



4회전의 승자대국은 전승자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사실상 결승전과 같은 분위기와 무게가 실린 대국이다. 이 대국에는 또 단체전의 승점뿐만 아니라 개인전 4강에 진출하는 티켓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세돌이 승리하면 최한용 5단이 승리하면 최한용 5단으로서는 너무나 아쉬운 한판이 되었다. 이것으로 이창호 5단은 개인전 4강에 진출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큰 승부일수록 부담도 커지기 마련이어서 의외로 졸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대국도 명승부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초반에 쉽게 승부가 갈려버린 싱거운 한판이 되고 말았다. 초반에 벌어진 좌변의 접전에서 최한용 5단의 대마가 이렇다 할 대가가 없이 너무도 어이없이 잡혀버리고 만 것이다.

흑 71로 붙이고 73으로 끊어 강력하게 몸싸움을 시작해서 79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둘 때까지만 하더라도 흑이 승기를 잡았다는 평이 우세했다. 그런데 계속해서 81, 83으로 밀어간 수가 지나쳐서 백 84의 역습을 초래해서는 수습불능의 지경에 들어가버린 것이다. 이 결과 백 92로 뛰게 되어서는 흑 대마가 수부족으로 어이없이 몰살당했다. 이 대국은 사실상 승부도 여기서 끝났고 말았다.

이창호 5단으로서는 이제까지의 어느 바둑보다도 쉽게 가장 중요한 한판을 건져올린 행운이 되었지만 최한용 5단으로서는 너무나 아쉬운 한판이 되었다. 이것으로 이창호 5단은 개인전 4강에 진출하는데 성공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YOBO 교보생명

나현 “세계 어린이 국수 됐어요”

나현(12·서울 도곡초 6년)군이 제7회 대한생명배 세계어린이 국수전을 제패했다.

나현은 지난달 27일 63빌딩에서 스위스리그 방식으로 열린 최강부 제5라운드(결승전)에서 송재환(안양 귀인초 5년)군에게 260수 만에 백 7집 반승을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 때마다 우승 후보로 꼽혔던 나현군은 이번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으나, 이번 대회에서 5전 전승으로 타이틀을 떠나 영재 장학금 1천만원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30개 지역에서



1만1000여 명이 출전, 한 달간의 예선을 거쳐 결승 진출자 288명이 각부 패권을 다했다. 올해 최강부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홍콩 태국 대만 네덜란드 러시아 등 8개국 대표가 각축을 펼쳤다.

윤영기기자 penfoot@

이창호 9단이 2개월 만에 랭킹 1위로 복귀했다.

이창호는 1일 한국기원이 발표한 8월 국내 프로기사 랭킹에서 2만107포인트를 얻어 1만9천638포인트의 이세돌을 469포인트 차로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이창호는 7월 한 달 동안 4승7패로 부진했으나 전자랜드배와 왕위전, 국제대회인 후지쓰배 등 세 차례 결승대결을 벌이며 770포인트

이창호, 2개월만에 국내 랭킹 1위 복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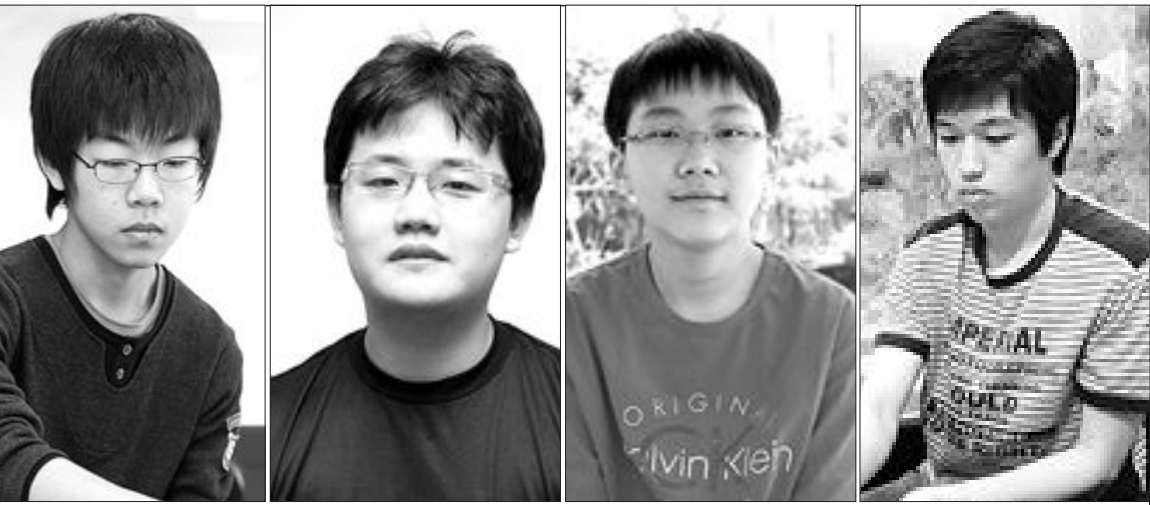
이세돌 제쳐 3위 박영훈, 4위 최철한 順

를 올린 것이 1위 복귀의 원동력이 됐다.

반면 지난 6월 이창호를 밀어내고 1위에 올랐던 이세돌은 지난 한 달 간 9승1패의 뛰어난 성적을 거뒀지만 상대적으로 포인트가 큰 결

부동의 3, 4위 자리를 유지해 온 최철한 9단, 박영훈 9단이 각각 자리바꿈을 한 것.

이번 랭킹에서 3위로 올라선 박영훈 9단은 랭킹 제도가 실시된 이후 출금 최철한 9단에겐 순위가 뒤져 있었으나 7월 후지쓰배 우승 등 9전 전승의 성적을 바탕으로 최 9단을 제치고 랭킹 3위로 치고 올라섰다. 이밖에 이영구와 윤준상이 8위와 9위를 자리바꿈했다.



〈한상훈 초단〉 〈배준희 초단〉 〈박정환 초단〉 〈박승화 초단〉

守拙 신드롬! 돌풍인가 거품인가

〈수拙=바둑 초단〉

한상훈·배준희·박정환·박승화 등 두각 프로 입단 후 체계적 관리로 기력 향상 “상위 랭커 몇번 이겼다고...” 거품 분석도

한상훈, 배준희, 박정환, 박승화 등 수拙(守拙·초단)의 별칭·졸렬하게 나타내 제 겨우 제 한 몸은 지킬 수 있게 된 단계)들이 주도하는 ‘초단 신드롬’이 바둑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국기원이 창간 40주를 맞아 발행한 ‘월간 바둑’ 8월호는 특집기사 ‘초단 신드롬, 돌풍인가? 거품인가?’를 통해 이같은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어린 나이를 꼽았다.

18세를 넘기면 프로가 돼도 성공할 수 없다는 바둑계의 속설이 그대로 입증되고 있다는 것이다. 7월25일 현재 (재)한국기원 소속 초단은 25명. 지난 2000년~2007년까지 연도별 입단자들의 평균 연령은 16.5세로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 한다.

한국 바둑계를 주름잡고 있는 조현원(9살), 이창호(11살), 이세돌(12살), 최철한(12살), 강동윤(13살), 박영훈(14살) 등 내로라하는 기사들은 모두 9~14살에 입단했다. 한상훈 초단이 18세 7개월이 지난 뒤 입단했고, 서봉수 유망형 9단이 만 18세에 입단한 뒤에도 성적을 냈지만 이들의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초단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프로의 좁은 관문이다. 남고기는 연구생 30여명이 매년 9장의 입단 티켓을 놓고 벌이는 기력싸움이 입단 후 성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 이유는 기사들이 예전과 달리 입단 후에도 각종 연구회나 출신 도장에서 연구생 시절과 맞먹는 정도로 기력을 담금질하는 ‘입단 후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다.

초단 돌풍에는 최근 기전의 속기화라는 순풍도 작용하고 있다. 중견 기사들은 물론이고 기존의 젊은 강자들도 새내기 특유의 순발력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그러나 ‘초단돌풍’을 바라보는 바둑계의 시선은 아직까지 ‘관망’이 대세다. “거품”이라는 냉혹한 분석도 없지 않다.

목진석 9단은 “초단들이 성적을 내는 것은 거품이 아닌 것 같다. 한상훈은 왕위 도전자결전에 올랐고 LG배에서도 구리를 이김으로써 실력을 입증했지만, 나머지 초단은 본선에서 뚜렷하게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일단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다.

연구생 지도를 맡고 있는 한종진 7단은 “상위 랭커들에게 한 두 판 이겼다고 해서 초단들을 더 무과대 평가할 면이 없지 않다. 한국 바둑리코에서 초단들의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며 잘라 말했다.

한 7단은 2007 한국바둑리코에서 초단 5명이 출전하고 있지만 이들의 성적은 초단돌풍이 거품일 수 있다는 분석에 무게를 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들이 7월 10일 현재 한국바둑리코에서 거둔 성적은 4승12패, 승률 25%에 그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안조영 9단의 분석은 의미가 있다. 초단들이 실력이 나이진 것 만은 틀림없지만 적어도 2~3년 정도는 검증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07년 바둑계를 강타한 ‘초단돌풍’이 대체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s including '대인동상일부동산', '무등공인중개사', '정우부동산', '첨단월계공인중개사', '한일지도판매(주)', '대지부동산', '특급상가 매매·임대', '복구 용봉동 무를 상가주택', '전대후론 증심상권 상가주택', '전대후론 노래방 70평', '전대후론 대로변 1층 50평 상가', '복구 운동동 인근 2천세대 아파트 상가', '복구 용봉동 전대공대 건너편 맨션'.

Real estate advertisements including '한일지도판매(주)', '대지부동산', '특급상가 매매·임대', '복구 용봉동 무를 상가주택', '전대후론 증심상권 상가주택', '전대후론 노래방 70평', '전대후론 대로변 1층 50평 상가', '복구 운동동 인근 2천세대 아파트 상가', '복구 용봉동 전대공대 건너편 맨션'.